

사회학 개론

젠더와 섹슈얼리티

학번 /성명

2313/정희주, 2613/오서윤, 2425/허울

수업 일

10월 7일 4교시

10월 11일 4교시

※ 이렇게 활동해 주세요.

1. 이제 자신의 모둠에 돌아가 조원들에게 **설명할 내용** 및 **토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2. 전문가 집단 중 이 과제를 제출할 리더 1명을 선정(리더 안했던 사람 중) 후, 써머리 요약 방법 및 과제 제출 시기 등등 조율합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각각 제출**합니다.
3. 결석 등의 이유로 수업에 참여 못하는 학생들도
4. 이 활동은 2차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5. 작성 후 **두번째(7차시)** **해당 수업일 밤 11:59 시간까지!!! 제출**합니다!!!! (수행평가)
(제출 시간 늦으면 해당 전문가 집단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챙겨주세요)

주의!!! 글자 크기 및 폰트는 새롭게 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작성합니다.

[1] 조원들에게 설명할 주요 내용 정리

-> **핵심내용**을 정리함.

-> 내용 정리 후 각 주제의 전문가 집단에서 **토의한 내용의 주제 및 내용**을 간단히 정리

->분량: **3페이지(±10줄)**. (단, **1페이지**는 지금 보이는 화면. **2~3 페이지**는 빈화면 전체에 해당함.)

성 정체성의 사회적인 학습

1) 성 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논쟁

젠더의 차이와 개인의 인간성이 생물학적 본질과 연계된다는 주장 : 근본주의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의 주장

: 조지 머독

→ 여성이 가사 업무를 맡고, 남성이 바깥 일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편리

→ 모든 문화권에서 성별 노동 분화가 존재함

: 탤컷 파슨스

→ 가족이 성별 노동 분업이 가장 잘 작동하는 집단

→ 여성 : 자녀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짐,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표현적 역할

→ 남성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

성별 노동 분업이 자연스러운 형태라는 주장(근본주의)에 대한 여권론자들의 비판

→ 분업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남성들의 편의를 위해 여성 지배를 정당화

2) 맥 앤 게일의 젠더레짐 연구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의 영역을 구축하게 하는지에 주목

맥 앤 게일은 학교가 이성애적 유형으로 특징되었으며, '지배적인 남성스러움'과 '복종적인 여성스러움'의 위계질서를 장려한다고 주장
훈육 과정 뿐만이 아닌 교과목 배정, 선생-학생 간 상호작용 및 통제와 같은 학교에서의 각종 가르침이 모두 이성애적 남성스러움의 구축에 기여
→ 이와 같은 이성애적 가치가 당연하게 학교 내에서 통용되게 되며, 게이 청년에게 젠더와 성적 정체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혼란과 이율배반적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을 비판

맥 앤 게일은 학교 내에서 전개되는 남성스러움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네 유형 모두 학교 내에서 타인, 또는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남성스러움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고, 이는 게이 남성에게 정체성적 혼란을 줄 여지 존재.

젠더 불평등과 여권론

젠더의 차이: 사회 계층의 중요한 형태이며, 개개인에 역할에 지대한 영향력 행사함. 또한, 사회적 불평등의 근간으로서 작동함. --> 여권론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원인과 대처 방안을 이론적으로 고찰.

1. 자유주의 여권론

-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젠더 불평등 설명.
- 여성 복속은 더 큰 체계나 구조의 부분 x, 대신 불평등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독립적 요소들에 주목. 여성의 동등한 기회 위한 합법적 절차 사용, 법적 보장 장치의 중요성 강조.
- 기존 제도 속에서의 점진적 개혁 추진, 여성 지위 향상에 공헌 / but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 제거 x, 사회 전체의 체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음.

2.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여권론

- 마르크스의 갈등론에서 발전 -> 구조적인 이해 관계에 의한 여성 차별에 주목
- 엥겔스: 자본주의는 소수의 남성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시킴 -> 가부장제는 사유 재산에 기반하기에 여성이 남성에게 굴복하는 원인이 됨
- 자본주의는 남성을 재산 소유자, 상속자로 규정 / 여성을 소비자로 규정
- 가족의 재구조화, 여성이 수행하는 무임금 가사 노동의 노예성 종언 요구
- 평등 달성 위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마르크스 사상에 동의.

3. 급진주의 여권론

- 가부장제 (남성의 체계적인 여성 지배)가 주 관심사
- 사회 속 여성의 억압은 가족으로부터 시작 (무급 가사노동을 통한 여성 착취)
- 초기 급진주의 여권론자: 여성의 출산이라는 기능 -> 남성에게 의존적 존재가 됨 (생물학적 불평등)
- 이외: 가정폭력, 강간,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남성 우위의 핵심
- 여성에게 기대된 행동 양식, 외모 기준, 성적 대상화 -> 여성 복속의 영속화

4. 흑인여권론

- 타 여권론자들의 논의: '여성'이라는 포괄적 집단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만 논하고, 인종이나 사회 계급 고려 않은 일반화된 주장이라고 비판. 기존 여권론으로는 흑인 여성의 차별 설명 x
- 미국 역사 내 흑인 차별, 노예제, 인종분리정책 등의 영향 강조 -> 흑인 여성들은 인종, 성차별 모두의 대상이 됨
- 가족이 가부장제의 원천임을 부정 (흑인 가족: 인종차별에 대항하며 유대감, 결속 다지는 단체)

5. 포스트모던 여권론

- 모든 여성이 공유하는 단일의 정체성, 경험 x -> 사회 전체 설명하는 메타이론, '여성'이란 보편적 범주 거부.
- 그 대신 다양한 관점의 타당성 인정 -> 개인적, 이질적 집단들의 '타자성' 강조
- 남성적 언어, 세계관 해체 ->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용어, 언어 창조 시도

6. 퀴어 이론

- 성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 사회학적 논리 타파,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완전한 구분 주장
- 현재까지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 x, 오히려 특정 담론을 구성 -> 정체성이란 다원성, 상대성 지니며 생애 주기 동안 변화 가능

- but 경험적 지지가 결여되었다고 비판. 실제 사회에서는 성적 범주와 젠더 범주가 사회 구조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 사회는 여전히 생물학적인 성, '양성'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다양성 이해에 해를 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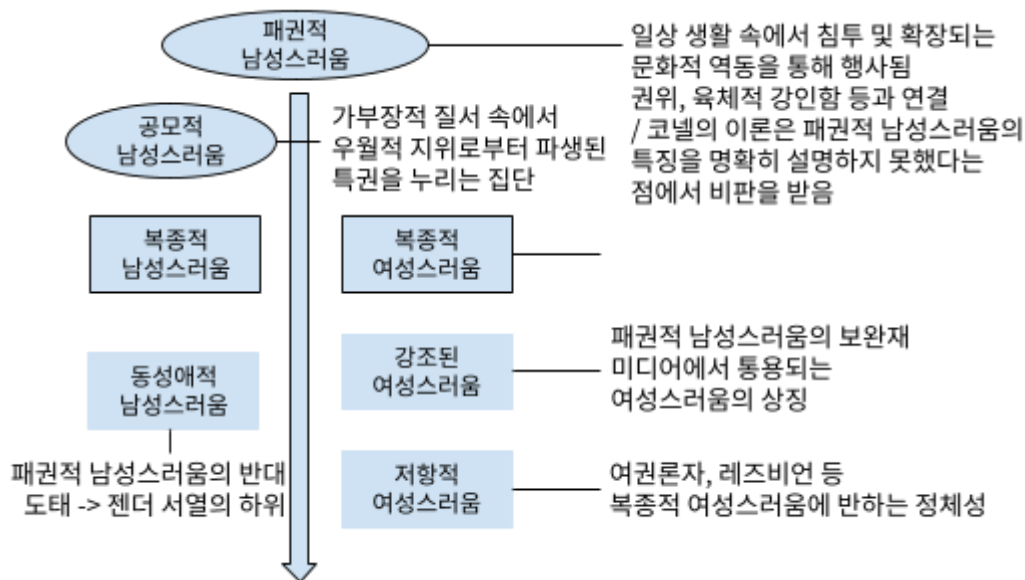
- 스포츠의 '젠더 감별': 전통적으로 여성스러운 외모, 경기 실적에서 벗어나는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적 검사. → 여성 선수의 성취 가능성 무시.

코넬의 젠더 역동성, 젠더 서열

래원 코넬 : 젠더에 관한 경험적 증거물은 조직화된 인간 사회의 관행이며 사회관계

⇒ 사회생활 속의 젠더 질서 연구를 통해 성역할에서 두드러지는 특성/행동/자질을 탐구

<젠더 서열 구조와 그 특징>



젠더 질서에 기여하는 3가지 상호작용 존재

: 노동(성별 노동 분업), 권력(폭력이나 이데올로기, 사회적 관계 속의 권위), 카섹시스(혼인과 자녀 양육 등 사적 관계에서 전개되는 역할)

⇒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되는 보다 작은 규모의 젠더 관계 : '젠더 레짐'

젠더 정체감은 계속해서 바뀌고 정의될 수 있음 → 기존의 젠더 서열 속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음

젠더 관계 유형은 불변하는 질서가 아님 → 인간 의식 변화에 따라 파괴 및 변화할 여지가 있음

*젠더 서열의 변화 : 젠더 위기

- 남성의 권위를 지탱하던 법과 제도들이 여성 친화적으로 변화 → 제도화 위기
- 여성 및 게이 섹슈얼리티의 성장 → 패권적 이성애주의의 위세가 약해짐
- 기혼 여성의 인권, 게이 운동, 남성 中 반성차별주의자 태도의 증가 → 젠더 위계 질서에 위기를 가하는 이해관계 형성의 위기

⇒ 젠더 질서에 대한 위협은 남성에게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남성상'의 정립은 새로운 인간관계 유형의 정립을 초래

대한민국에서 여권론(페미니즘)이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이 아닌 남성 혐오 운동으로 비춰지는 사회,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의 '페미니즘': 양성 평등, 여권 신장 < 남성 혐오, 여성 우월주의 이미지가 강함
→ 대한민국에 페미니즘이 유입될 당시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상의 래디컬(급진적) 페미니즘이 우선적으로 유입되며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먼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한국의 사회는 급격한 경제 발전에 반해,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이에 수반되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함

→ 유교 및 성리학 사상들을 기반으로 한 보수주의적 가치관 유지, 새로운 사상에 대한 배척 발생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 개인의 하나의 이슈에 대해 편향된 사상 형성 → 집단 내 극단적 담론 형성 및 객관적 통찰력 상실 →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적 담론 형성